

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5 vol.402



목욕탕에서 생명을 구한 한양대학교병원 황승연 방사선사(interview 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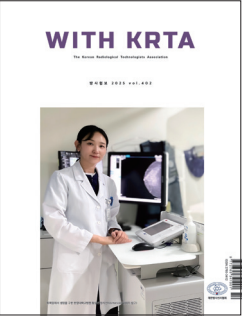
대한방사선사협회

9 772765 341001
ISSN 2765-3412



WITH KRTA

2025 vol.402



표지 이야기
목욕탕에서 생명을 구한 한양대학교 황승연
방사선사의 용기 있는 순간.
긴급한 상황 속 생명을 구한 순간을 interview를
통해 만나 본다. 58~59쪽

발행일	2025년 6월 30일(통권 402호)
발행인	한정현(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조원홍(삼성서울병원)
미디어혁신이사	임기선(충북대학교병원)
편집위원	조선일(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양민재(서울대학교병원), 심지나(세브란스병원), 이호일(세브란스병원), 서영석(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인성(이대목동병원), 성열훈(청주대학교), 김규형(영지병원),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손진현(신구대학교), 안예은(대한방사선사협회)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여울
인쇄	송현문화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17 **사·도회 소식**
- 27 **전문화회 소식**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36 **Internship**
해외 방사선학과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41 **Study**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
- 46 **History**
유리로 시작한 엑스선 영상 기록 매체



We are RT's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50 **Essay**
감각의 리밸런싱(Rebalancing), AI 시대의 새로운 일상
- 52 **Review**
일본방사선기술학회 학술대회(JRC 2025) 참가
- 54 **Review**
신한FUN 논문조, KIMES 2025 다녀오다!
- 56 **Review**
충청방사선사연합학술대회에 다녀와서
- 58 **Interview**
목욕탕에서 생명을 구한 방사선사,
황승연 방사선사의 용기 있는 순간
- 60 **Insight**
환자를 위한 한 장의 정확한 영상
- 방사선사 전성배의 전문성과 커리어 성장 이야기
- 61 **Webtoon**
숨 참으세요
- 63 **공지사항**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제22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공고
- 65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The 60th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32nd EACRT International Conference

방사선 기술 60년의 발자취로 의료의 미래를 여는 방사선사
Radiological Technologists Opening the Future of Healthcare
Through 60 Year of Radiological Advancement

2025년 11월 8일(토) 09:00~18:00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

주최·주관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후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중앙회 소식 _ 04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시·도회 소식 _ 17

서울특별시회
인천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부산광역시회
충청북도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전문학회 소식 _ 27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CT영상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인터벤션기술학회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WITH KRTA

발로 뛰는 협회

2025 March

- 3.2.

2024년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기감사 보고서 관련 논의
- 3.4.

재무부 업무 활동
제1차 법제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
- 3.5.

제17차 윤리위원회의
돌봄법 관련 회의
- 3.7.

돌봄과 미래 개소식
- 3.8.

2025년 제1차 보수교육강사 양성교육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학술대회
무료 법률 상담
- 3.9.

2024년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정기감사 보고서 관련 논의
- 3.10.

대한의사협회 인터뷰
대한방사선사협회&몽골 방사선사 회원 간담회
법제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
- 3.1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회의
교육부 업무 활동
- 3.12.

보건복지부 간담회
- 3.13.

제1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CMS 업체 미팅
- 3.14.

법제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
- 3.15.~17.

제58차 대만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 3.17.

제3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제3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 3.1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간담회
14보건의료연대 단체장 간담회
- 3.19.

제18차 윤리위원회 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 정책간담회
- 3.20.

학술대회 운영시스템 구축 회의
제51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제3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3.21.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
- 3.22.

2025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문항개발능력 향상 워크숍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학술대회
- 3.24.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현안 논의
2025년 제2차 보수교육평가위원회 회의
- 3.25.

법제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
- 3.26.

법제부 업무 활동
제3차 사무국 업무 회의
대한영상의학회 미팅
- 3.27.

재무부 업무 활동
(사)대한방사선사협회 LG CNS 계약
법제부 업무 활동
- 3.28.

협력업체 미팅
- 3.29.

2025년 제1차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회의
무료 법률 상담



발로 뛰는 협회

2025 April

- 4.1.

제4차 법제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미팅
- 4.2.

법제부&재무부 업무 활동
제4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병원간호사회장 미팅
- 4.3.

제1차 연수원운영위원회 회의
간호법 세부 시행령 관련 관계 단체장 미팅
- 4.4.

간호사-의료기사 업무 범위 관련 간담회
- 4.5.

2025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 4.7.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4.8.

총무부 & 사업보험부 업무 활동
- 4.9.

제19차 윤리위원회 회의
- 4.11.

법제부 업무 활동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
대한병원협회 제66차 정기총회
- 4.12.

제22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및 문항출제 및 문항정리 워크숍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방사선치료학회)
- 4.13.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방사선보건학회)
- 4.14.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간호법 시행규칙 관련 간담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미팅
- 4.15.

법제부&정책연구원 업무 활동
재무부 업무 활동
- 4.16.

법제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2차 회의
병원신문 창간 39주년 기념식 및 제15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
- 4.17.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
- 4.19.

제234차 정기이사회 회의
산불피해 성금 전달
- 4.21.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남부대학교 현판식
- 4.22.

총무부 업무 활동
- 4.23.

전임회장 간담회
- 4.24.

제4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대의원 총회 임원 & 총무부 업무 활동
- 4.25.

2025년 전국 공직 방사선사 학술대회
- 4.26.

대한CT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국회 일정
법제부 업무 활동
무료 법률 상담
- 4.27.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 총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미팅
- 4.29.

법제부&법무법인 정의 업무 활동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 4.30.

제4차 사무국 업무 회의



2025 May

- 5.1.
 - 국회 직능위원 미팅
- 5.2.
 - 건강장수의 날(오복데이) 제정 및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
 - 2025년 제1차 정책연구 과제 계약
- 5.3.
 - 제1차 상임이사 & 정책연구위원회 간담회
- 5.7.
 - 제4차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 제1차 청구실명제 TFT 회의
- 5.8.
 - 법제부 업무 활동
 - 사무국 PG사 미팅
 -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
- 5.9.
 - 제5차 기록보존위원회의
 - 국회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미팅
- 5.10.
 - 2025년 제24회 미추홀국제학술대회
 - 무료 법률 상담
- 5.12.
 - 법제부&대한CT영상기술학회 업무 활동
 - 2025년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 변호사 미팅
 - 법원 참관
- 5.13.
 - 2025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
- 5.14.
 - 제3차 법제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
- 5.15.
 - 제브 정기이사회 회의
 - 직능본부 제2차 민생정책 협약식
- 5.16.
 - 제5차 상임이사회의 회의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추가감사(대한방사선보건학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 학술대회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날 선포식
- 5.17.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핵의학기술학회)
 - 2025년도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종합학술대회
- 5.18.
 -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전문학회 감사 (대한방사선과학회)
 - 2025년도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종합학술대회
- 5.19.
 - 제5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법제부 업무 활동
 - 제1차 학제 단일화 TFT 회의



'한 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국민 건강권 위협' 대한방사선사협회 강력 반대 입장 밝혀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추진하는
 '한 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발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방사선사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준비 중인 '한 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 단체로서, 방사선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각 지역의 업무 범위는 해당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엑스선 발생 장치의 운용 및 촬영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리방사선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제한된 사용 권한이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한 의사를 엑스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여 한 의원에서 한 의사가 합법적으로 엑스선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정환 회장은 “이 법안은 현행 의료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방사선사의 법정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이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행법은 방사선사의 업무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명시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련 지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의료인의 관리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한정환 회장은 “엑스레이 촬영은 엄격한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충분한 전문 교육과 경험을 갖춘 보건 의료인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번 한 의사 엑스선 안전관리책임자 인정에 관한 법안 발의를 반대한다. 각 지역 간 역할 존중과 협업을 통해 진정한 국민 건강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정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8개 단체 등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건강수명 80세 향한 첫걸음,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 개최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과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진

치료 중심에서 예방·돌봄 중심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공동 참여

5월 2일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임지준)는 국민이 지역 사회와 가정 내에서 자립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진행하는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을 비롯하여 장지필 부회장, 김영재 이사, 광주광역시회 신성진 회장, 인천광역시회 박종창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대표 국회의원 이수진)과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각계 의료 직역 단체 단체들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기대수명(84.7세,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록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여전히 그에 비해 10년 이상 짧은 노년기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연명 중심의 장수'에서 '삶의 질을 지키는 건강 장수'로

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더하여 구강, 영양, 보건,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가정에서의 자립적 생활을 통한 건강 장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이수진 국회의원('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표)과 임지준 준비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여야 간사, 위원회 고문단·명예대표단의 축사에 이어,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의 기조발언과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33인의 추진위원을 대표해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문'을 낭독했다. 윤 교수는 4대 국민 약속으로 '2050년 이전 건강수명 80세 실현', '건강격차 해소', '사회구조와 문화의 개선', '국민 주도 실천 운동 확산'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공식 발표하며, '건강 장수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

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5월 2일로 기념일을 지정했다. 5월은 오복(五福)이라 불리는 다섯 가지 복(건강, 장수, 부귀 등)을 뜻하고, 2일은 치아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5년마다 국민의 건강수명을 2년씩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5080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기존의 치료 위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예방과 돌봄 중심으로 국가 건강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은 단순히 의료를 넘어, 지역사회와 일상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방사선사 역시 정확하고 안전한 영상진단을 통해 조기 질병 발견과 예방에 기여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건강장수의 날' 제정은 국민 건강을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한 시작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건강수명 5080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선포식 이후 단체 사진



2025년 주요 사업 및 정책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방사선사의 날·국제학술대회 등 주요 행사 계획 안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5월 22일(목), 서울시 송파구 협회 회의실에서 보건의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2025년 협회 주요 행사 계획과 지역 관련 정책 현안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정환 회장을 비롯해 임기선 이사, 조선일 부장이 참석했으며, 언론계에서는 일간보사 이상만 국장, 라포르시안 이상섭 이사, 닥터뉴스 김영학 이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부장, 후생신보 이상철 국장, 의계신문 박명인 국장, 병원신문 윤종원 국장,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등 보건의로 분야 주요 언론인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한정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보건의로 환경 변화에 따라 방사선사의 직무 전문성과 권한을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해줄 기자 분과 함께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협회는 오는 7월 ‘제3회 방사선사의 날’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제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EACRT)’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방사선사의 위상과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닥터뉴스 김영학 대표는 참석 기자들을 대표해 “방사선사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협회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에

보건의로 분야 언론인들과 함께한 간담회 현장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데, 협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오늘 같은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건의로 지역 간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된 협회의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협회는 특히, 한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 추진에 대해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고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명확한 지역 구분과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현재 8개 의료기사 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점을 짚으며, 방사선사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방사선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정책 개발과 공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사의 업무가 타 직업으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의 연대, 정책 연구, 입법 활동을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 직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정환 회장



강원, 경북, 경남 대형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선금 1,000만 원 기부 ‘산불 피해 주민 일상 회복과 재건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성금 전달식 모습 (왼쪽부터) 대한방사선사협회 김영재 복지·권익이사, 한정환 회장, 박종창 시도회장협의회 간사, 서영배 부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최근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9일(토) 총 1,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성금 모금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전국 16개 시도회(서울특별시회, 부산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인천광역시회, 광주광역시회, 대전광역시회, 울산광역시회, 경기도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충청북도회, 충청남도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전라남도회, 경상북도회, 경상남도회, 제주특별자치도회)가 참여했으며, 각 시도회

가 자발적으로 정성을 모아 기금을 조성했다.

한정환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에 작은 위로가 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의로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사선사들의 단체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재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방사선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상생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남부대학교에 교육인증서 전달

방사선 교육의 질 향상위한 인증제도 운영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한정환)와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원장 권덕문)은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과 방사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 인증 대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정환 회장은 지난 4월 28일 남부대학교를 방문해 교육인증서를 전달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권덕문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장, 신성신 광주광역시방사선사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남부대학교 측에서는 조준범 총장을 비롯해 황민구 교무처장, 구민 학술정보원장, 방사선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들이 함께했다.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은 교육 인증을 희망하는 방사선학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과정은 ▲서면 평가 ▲현장 방문 평가 ▲분야별 평가보고서 작성 ▲이사회 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 항목으로는 ▲학과의 비전 및 운영 체계 ▲교육과정 구성 ▲학생 지도 및 복지 ▲교수 확보·복지·개발 지원 ▲교육·편의 시설 ▲교육 성과 등으로,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된다.



이번 평가에서 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는 총 34개 세부 평가 항목 중 우수 13개, 충족 21개를 받아 최종적으로 교육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정환 회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교육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은 물론, 예비 방사선사들을 위한 교육 기반이 한층 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협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교육 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에 인증 로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인증제를 통해 전국 방사선학과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KABRE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지난 5월 22일 대한방사선사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저출생, 고령화 등 심화 되는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보건 의료인들의 참여를 권면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정환 회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방사선사 역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방사선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보건의료 인력으로서, 인구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건강

검진 수요와 질환의 조기 진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는 영상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방사선사의 높은 전문성과 정확성은 건강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 만큼, 협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정환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백설경 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한 회장은다음 참여자로 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과 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을 지목했다.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가운데)과 조선일 부장(왼쪽), 임기선 이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와 민생 정책 협약 체결

방사선사 법제화 및 교육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 과제 제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5월 15일(목)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총괄본부장 남인순)와 민생 정책 협약식을 가지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정책 활동 및 치과위생사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 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을 비롯하여 정일영·임오경 수석본부장, 이수진·김윤 의원 등 직능전담제 책임의원과 대한방사선사협회 장지필 부회장이 참석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직능단체 정책 협약'의 일환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의 제도적 과제를 반영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민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방사선사 고유 업무

수행시 건강 보험 급여 수가에 반영되어 방사선 전문가가 검사를 진행하도록 법적 제도화를 위한 '급여 청구 실명제' 법제화 추진, ▲방사선사 양성 교육의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방사선학과 4년제 '학제단일화' 법제화 추진 ▲'방사선사법' 법제화 추진하여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를 명확히 적용하고 국민 건강에 올바른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화 추진 등의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협약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지필 부회장은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과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활발한 정책 활동을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와 정책 협약 체결

의료기사단체 현안 전달 및 제도 개선 촉구



대한방사선사협회는 5월 27일(화), 국민의힘 당사에서 개최된 김문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기사단체의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서명옥 직능총괄 부분부장을 비롯해 허봉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최정욱 부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김한규 부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김혁일 부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박정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의료기사단체연합회 산하 8개 단체의 공동 현안을 담은 정책 협

약서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허봉현 총회장이 협약서를 전달했다. 주요 현안에는 ▲의료기사의 법적 지위강화, ▲고령화 및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돌봄 체계 내 업무범위 재정비 및 법적 근거 재확립, ▲현장기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의료기사의 법적 지위 강화, 고령화 및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돌봄 체계 내 업무범위 재정비 및 법적 근거 재확립, 현장기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한정환 회장은 "앞으로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의 연대를 통해 의료기사 직역 전체의 권익 향상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협조하며 나가겠다."라고 전하였으며, 향후에도 유관 단체 및 정당과의 협력을 통해, 방사선사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된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33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및 제25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학술대회 홍보 및 지속적인 국제 교류 계획 밝혀...

대한방사선사협회는 6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3차 태국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및 '제25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AACRT)'에 참석해 국제 협력 및 행사를 홍보, 방사선사 직역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정환 회장을 비롯해 차상영 총무이사, 이홍규 강원특별자치도회장, 박연준 국제교류원장이 협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호주, 대만, 인도, 홍콩, 일본, 마카오,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등 13개국 방사선사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했다.

ISRRT & AACRT Meeting

6월 4일 열린 ISRRT 및 AACRT 공식 미팅에서는 ▲비의료인의 방사선사 업무 침해 사례(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및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력 방식 ▲각국 협회의 정책 대응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ISRRT측은 “국가 보건기관과의 정책적 연계를 통한 권고 수준의 대응은 가능하지만, 직역 침해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실을 공유했다.

이번 미팅에서는 각국 대표자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한국 전통공예품인 나전칠기 벽시계와 전통 디저트인 오란다와 양갱을 제공하여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기도 했다.

- 2026 ISRRT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개최지로 확정

- 2027 ISRRT 대만 개최지로 확정

AACRT Conference 개최식

6월 5일에 진행된 학술대회 개회식(Opening Ceremony)에서는 한정환 회장이 '각국 방사선사 교육과정 및 협회 역사, 임상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정환 회장은 발표를 통해 국가별 방사선사 직군의 제도적 차이, 교육 과정의 범위, 법적 지위 등을 비교하고, 각국의 방사선사 양성과정 및 임상 역할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60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32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EACRT)'를 소개하고 각국 대표단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 향후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회

2025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9차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하나의 목표, 하나가 된 우리, SRTA와 함께'

3월 22일(토) 서울 코엑스 4층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2025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9차 국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인 KIMES 2025와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의료 기술과 방사선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적인 규모로 개최되어,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총 1,913명의 회원과 재학생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참석자 구성은 회원 1,081명, 재학생 784명, 외국인 회원 48명이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야별 논문발표, 포스터 전시, 최신 의료기기 소개 및 기술 트렌드 공유 등을 통해 방사선학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학술자료와 최신 연구 내용을 접하며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박성모 회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대한방사선사회회 한정환 회장의 격려사와 함께 박재명 서울특별시 의료기사 총

연합회 회장, 대만 타이베이시 방사선사협회(TPART) Huang, Shan-Su 회장, 일본 도쿄도 방사선사협회(TART) Tetsuo Eda 회장, 시가현 방사선사협회(SART) Takeda Noriaki 회장이 차례로 축사를 전하며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들은 방사선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과 국제적 교류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각 분야에서 공헌한 기관과 개인에게 시상을 진행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상

배승호(서울아산병원), 이윤재(삼성서울병원), 장윤태(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회 모범병원상

중앙대학교병원 영상학과

○ 학술상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서울대학교병원 영상학과

○ 공로패

강기봉(세브란스병원), 서재룡(서울특별시청), 이영주(세브란스병원)

○ 국제교류 공로패

Satoru Matsuo(SART), Misao Shimizu(HART)

○ 감사패

삼성메디슨, 나이스메디가, DK메디칼솔루션,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제브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5대 서울특별시회 학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수의 우수 연구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SRTA 대상은 「Rib cage oblique 검사 시 Tube angle을 이용한 Modify 검사의 유용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이병학(강동경희대학교병원) 회원, 학술 최우수상은 박중운(서울아산병원) 회원이, 학술 우수상은 차영경, 정운찬(서울대학교병원) 회원이 각각 수상하였다.

장려상은 김지연, 김은혜(삼성서울병원) 회원과 금종완(세브란



스병원) 회원, 구연상은 하영재, 김진수(서울아산병원), 오욱진(서울대학교병원), 허진영(건국대학교병원), 박상조(세브란스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방사선학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로서, 학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의 목표, 하나가 된 우리, SRТА와 함께'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방사선 전문가들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제25회 대만 타이베이시 국제학술대회 및 2025 타이베이 국제방사선사학술대회 참가

4월 19일(토)부터 22일(화)까지 박성모 회장을 비롯한 총 15명의 대표단이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개최된 '제25회 대만 타이베이시 방사선사협회(TPART) 연례 학술대회 및 2025 타이베이 국제방사선사학술대회(The 25th Annual Meeting of TPART and 2025 Taipei International Congres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에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방사선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 분야의 최신 기술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 대표단은 학술 발표와 공식 교류 행사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삼성서울병원의 주영철 회원은 「A Study of Patient Position



Indices for Accurate Radiography in Glenohumeral Joint Projection [Grashey method]」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병원의 차영경 회원은 「Detection of Mam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Stereotactic Biopsy Failure and Guidelines」라는 주제로 연구를 발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술 프로그램 외에도, 타이베이시 시의원 및 TPART 전임 회장단,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Caesar Metro Hotel에서 공식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박성모 회장과 타이베이시 방사선사협회 Huang, Shan-Su 회장 간의 학술 교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 후에는 양국 대표자 간 상호 존중과 우의를 상징하는 기념 선물 교환식도 함께 진행되며, 양 기관 간의 교류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국내 방사선사들의 우수한 학술 역량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적 협력을 통한 발전과 전문성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회 회원 간담회 개최

하이파이브(경청·공감·배려·수렴·화합)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성모)는 4월 24일(목), 2025년도 제1차 분회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중소 규모의 병원 및 의원에 재직 중인 정회원들을 초청하여 협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간담회를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각 지역 분회별 회원들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제1차 간담회에는 박성모 회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회 회원 13명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리를 빛냈다.

분회 간담회는 29명 이하의 중소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방사선사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형 병원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협회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간담회 이전부터 서울특별시회 임원들은 개별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통해 간담회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였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

간담회는 먼저 참석자 소개 및 서울특별시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고, 이어 협회 회무 전반에 대한 안내와 올해 주요 일정 및 계획이 공유되었다. 이후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회원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화합의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석식 간담회가 이어져 보다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 병·의원의 인력난과 업무 부담, 장비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협회와 회원 간의 정보 전달 방식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회는 각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과 회무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분회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소통을 통해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소통 채



널 확대와 정책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회원들의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25년 초음파 Point 중심 실습강의

실습 중심 맞춤형 초음파 교육, 현장 중심 임상역량 강화

5월 31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특별시회는 중소 병·의원 근무 회원 임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초음파 Point 중심 실습강의' 대면 교육을 한국의료초음파연수원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특별시회 중소 병·의원부 주관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초음파 검사 기술을 직접 익히고 숙련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의는 중소 병·의원에 근무 중인 방사선사 및 임상 실무자들의 임상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실제 환자 진료 환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복부, 근골격계, 경부 초음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론보다는 실제 프로브 운용 및 영상 판독 실습에 중점을 둔 대면 교육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초음파 장비를 직접 다루며 각 부위별 검사 포인트를 익히고, 실습 강사의 시연과 1:1 또는 그룹별 지도를 통해 실전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실습 중심 교육은 특히 중소 병·의원에서 단독 또는 소수 인원으로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 의



료 환경 속에서 큰 도움이 되며, 교육 이후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과 자신감을 얻게 했다는 참가자들의 소감이 이어졌다. 교육을 주관한 서울특별시회 중소 병의원부는 '중소 병의원 회원들의 임상 실무 능력 향상과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대면 실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다양한 실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며, 의료영상 분야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의 진료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쓸 계획이다.

인천광역시회

상반기 부서장 간담회

3월 11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관에서 상반기 부서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부서장 간담회는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으로 구분하여 상·하반기 각각 진행하며, 이번 상반기 간담회는 중소병원 부서장님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협회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어 각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장비들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장비별로 기능적 특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경험, 사용자 편의성, 및 환자 대응 효율성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병원 규모와 환경에 따라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개선점들도 공유되었다.

박종창 회장은 늦은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부서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인천시회가 회원 여러분의 권익 향상과 현장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릴레이 봉사활동

인천광역시회는 4월 26일 올해의 두 번째 성인의 집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부평 침찬병원과 인천 함찬종합병원 방사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창한 날씨 속에서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바닥 물청소부터 시작해서 내부 환경 정리는 물론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내부 창고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 받을 만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다.”
- 알베르트 슈바이처



이날 함께 했던 봉사활동이 누군가의 일상에 작지만 큰 행복을 전하는 씨앗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걸음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전하며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무료 핸즈온 교육 실시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2월 27일과 4월 30일 인천광역시회 회관에서 상복부초음파와 심장초음파를 주제로 한 무료 핸즈온 교육을 진행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회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임상 적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인천광역시회 행사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먼저 2월 27일에 진행된 상복부초음파 교육은 총 8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지현 부회장과 지안 김진센터의 조인해 강사의 지도 아래 기본적인 초음파 검사 기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유용한 팁들이 전달되었다. 특히, 3시간 동안 충분한 실습이 이뤄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교육을 마친 회원들은 자유게시판을 통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4월 30일에는 정지현 부회장과 이지혜 강사의 지도 아래 심장초음파 핸즈온 교육이 열렸으며, 해당 분야에 입문한 지 1~2년 정도 된 회원들 5명을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검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 검사 시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할 부위와 정확한 검사 방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세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실제 사례 중심의 실습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수강한 회원들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이었다.”라고 호평을 남기며,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회원님들의 열정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제17대 인천광역시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제24회 미추홀 국제학술대회

‘함께하는 도약, 그 첫 번째 발걸음(Let's fly, together)’

5월 10일 토요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회원과 함께 더 높이 도약하고자 제24회 미추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의 일정은 총 10편의 재학생 논문발표를 초음파 임상실습, 2편의 시민공개 강좌, 8편의 회원논문 발표, AI 특강, 금관악단 ‘SNU 브라스 앙상블’의 축하 공연, 각종 수상 및 경품 추첨 등으로 10시부터 18시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회원논문 중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6월 28일에 개최되는 후쿠오카 진료방사선기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각 수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장 표창**
김민중 회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 협회장 표창**
채민석 회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국회의원 표창**
최성열 회원(인천광역시의료원)
- **인천광역시의회장 표창**
조우성 회원(의)길의료재단 길병원)
- **인천광역시장 표창**
조규상 회원(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구연상**
서강현 회원(인천한림병원)
- **우수상**
김호석 회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수민 회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함형서 회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이동환 회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최우수상**
이왕희 회원(의)길의료재단 길병원), 조규상 회원(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대상**
송채현 회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젊은 연구자상**
서강현 회원(인천한림병원)
- **우수 연구자상**
이동환 회원(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대구광역시회

중소병원 부서장 간담회

5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청라연에서 대구광역시 중소병원 부서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임원 및 지역 부서장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대구광역시회 방사선사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보다 포괄적인 시회 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함께 자리한 부서장들은 이웃 병원의 이야기와 부서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교류하며 협회와 병원 간의 소통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청모 회장은 이날 자리한 부서장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날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채널로 여러 회원과의 소통을 희망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와 업무 협약식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6월 12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사)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는 IT업을 창업하신 여성 대표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시작하는 기업인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교육과 지원 등을 하는 협회로 다양한 분야에 유능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협회이다. 또한 최근 의료 환경은 AI의 발전에 힘입어 양 단계 간 긴밀한 연결이 기대된다. 협약에 앞서 김청모 회장은 “IT와 방사선사는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고 양 단체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영남지회 김민희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김민희 회장은 최근까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제60차 정기 시의원 총회’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1월 22일(수) 더스타뷔페에서 ‘제60차 정기 시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이돈원 의장, 서경두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재직 시의원 106명 중 참석 57명, 위임장 25명을 비롯하여 이태식 부산광역시의료기사회장,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조규울 과장 김문영 주무관, 부산광역시회 원로회 이득원 회장, 양남희, 이만재, 이현용, 이돈원 전임회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윤주호 회장은 올해는 부산광역시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의원을 찾아뵙고 동영상 및 인터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와 더불어 주변에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상자 명단

-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양원석(동아대학교병원), 박현일(부산대학교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장 표창장**
이정빈(부산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의료기사회장 표창장**
이광식(동남권원자력의학원)
- **부산광역시방사선사회장 표창장**
정은수(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 **부산광역시방사선사회장 감사패**
이서영((주)신우엠디 대표이사)
- **방사선학과 학생 표창장**
신강현(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과)
장제원(동서대학교 방사선학과)
김수진(동의대학교 방사선학과)
김이진(동의과학대학교 방사선과)
김준오(춘해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여러 병원에 도움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 내부에 의료인 출신의 창업인도 많이 계신다며 양 단체의 앞날이 기대되고 많은 소통을 이어 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부산광역시회

2024년 상복부 초음파전문화교육 과정

부산광역시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초음파지방연수원과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주관으로 지난 2024년 9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7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상복부 과정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수료식에는 이미경 대한방사선사협회 중앙연수원장, 윤상근 부산시광역시회 부회장, 초음파 강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총 21명이 수료하였다.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4월 4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시청 국제 회의장에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부산시 박형준 시장, 부산광역시장 등 보건 의료 단체원, 공무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를 맞아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로 열리며, 시민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공자 시상식에서 부산시는 시민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선정한 보건의료인 27명과 공무원 11명 등 총 38명에게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보건의료분야 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대학교병원 차종진 회원이 유공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2025년 제1차 보수교육’ 실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4월 26일 토요일 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1교시 심장초음파 시간에는 기본 view의 이해(동의의료원 허윤희), 2교시 MR Enterography 검사 준비와 이해(부산대학교 병원 신지원), 3교시 CT 정도관리(동아대학교 병원 양원석), 4교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부산시 여성사회교육원 박상민)이라는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윤주호 회장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 참석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방초음파 전문화교육 과정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4월 26일 토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초음파 실습실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연수원 전문화 교육 과정 ‘유방초음파 연수교육’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



은 조은주(일신기독병원), 김귀하(제일병원), 홍은영, 전현미, 박소라(세계로병원) 강사진으로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30시간 과정으로 22명이 수료하였다.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정책간담회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부산광역시 약사회관에서 ‘부산&경남 지역 보건 의료단체와 정책간담회’와 5월 27일 국민의힘과 ‘부산광역시 당에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간담회 및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부산시회를 대표하여 윤주호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사단체와 함께 여러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충청북도회

제14차 충청방사선사 연합학술대회 및 제9차 충청북도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 개최

5월 31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 주관으로 ‘제14차 충청 방사선사 연합학술대회 및 제9차 충청북도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 충청남도회, 대전광역시회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여 충청도 방사선사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 행사로 ‘하나 되는 방사선사 환자

의 삶을 밝히다’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하나 되는 충청도의 모습을 목표로 실시되었다.

충청도에 있는 모든 방사선사들이 모인 만큼 약 200여 명의 충청도내 소재 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도 참석하여 논문 연재 발표와 선배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 각지에 있는 방사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의 업무적 교류와 소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향후 우리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세우면서,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었다.

현장에 참석한 마카오 방사선사협회(이하 MRTA) 협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사선사들의 발전에 힘쓰는 모습이 부럽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충청북도 방사선사협회 정원희 협회장은 “이번과 같은 업무교류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방사선사로서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충청도 방사선사회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 강병구 공보이사는 “본 행사를 기점으로 충청도 내 방사선사들의 학술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향후에는 환자들에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방사선사로, 의료전선의 최전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방사선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1회 학술대회 개최

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김창택)는 2025년 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 바람을 타고 의료영상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장을 맡은 김창택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방사선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방사선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방사선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정밀의료와 인공지능(AI) 기술의 접목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술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하여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원을 비롯하여 중앙회 임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주요 내빈으로는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 실장, 현길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양영수 도의원(제주시 아라동을)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제주의기총) 회장단(임상병리사 등 8개 직역) 등이 참석하였다.

사전 행사 격인 재학생(제주한라대학) 논문발표(2건)를 시작으로, 본 행사에서는 회원 논문발표(4건), 최신의료기술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특강과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의 진실」을 주제로 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고, 각 협력업체에서 준비한 최신의 방사선 의료장비 및 방사선 의약품 등의 홍보관을 마련하여 의료방사선의 기술적 발전 모습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제22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성료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회장 김상현)는 3월 8일(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하이브리드로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퀀트겐에서 인공지능까지 의료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총 9개국(일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몽골, 홍콩, 중국)의 방사선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돼 최신 방사선학 기술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장이 될 것을 전망하며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상현 회장(신한대 방사선학과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영상 의학 기술 발전을 위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영상의학 기술의 트렌드와 미래를 조망하는 제22차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국내외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의료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학술대회 발표는 국내섹션과 국제섹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의 논문 전문 10편, 초록 5편, 포스터 11편이 접수되었고, 재학생 논문 14편이 접수되었다. 또한 국제 논문으로는 9개 국가에서 초록 9편이 접수되어 총 49편의 연구들이 학술대회를 빛내 주었다.

연구 분야들을 살펴보면 일반/투시 분야의 영상의 질 평가를 통한 임상연구 및 흡수선량 비교 연구, 정확한 진단을 위한 영상조건 최적화 연구,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임상적용 연구, 방사선 장비개선을 통한 화질과 선량변화에 대한 연구 주제들이 있

었으며, 특히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진단 알고리즘 모델링 연구, AI를 통한 영상화질 개선에 관한 임상연구 등 최신 융합적인 연구들로 회원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수상자(회원)

최우수 논문상: 김휘광 회원(경희의료원)

우수 논문상: 김광수 회원(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문예은 회원(서울아산병원)

디알젼 학술상: 김용민 회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려 논문상: 김지홍 회원(세브란스병원), 주영철 회원(삼성서울병원), 김종현 회원(세브란스병원)

전문학회장상: 구남평 회원(은평성모병원)

국제 수상자(회원)

최우수 국제 논문상: Shaohua Tang 회원 (중국)

우수 국제 논문상: 장용진 회원 (대한민국)

장려 국제 논문상: Muhammad Khairulnizar Bin Azman(싱가포르), Uugantsetseg Bolorderdene(몽골), Atsushi Urikura(일본)

포스터 수상자(회원)

포스터 최우수상: 박재윤 회원(의정부 을지병원)

포스터 우수상: 김남영 회원(서울아산병원), 김기정 회원(건국대학교병원)

포스터 장려상: 이영진 회원(가천대학교), 이주현 회원(서울대학교병원), 안현준 회원(서울시 보라매병원)

구연상 수상자(학생)

최우수 구연상: 김나은 학생(대원대학교)

우수 구연상: 김수진 학생(동남보건대학교), 이정민 학생(신한대학교), 박다빈 학생(가천대학교)

장려 구연상: 신비 학생(울지대학교), 김승구 학생(한서대학교), 김민주 학생(강원대학교), 이건주 학생(울지대학교)

포스터 수상자(학생)

최우수 포스터상: 이해승 학생(신한대학교)

우수 포스터상: 나승혁 학생(동남보건대학교), 박주연 학생(을지대학교)

장려 포스터상: 김재민 학생(대원대학교), 김재원 학생(한서대학교), 안수진 학생(김천대학교)

최첨단 영상의학 기술 세션 및 국내외 저명 연사들의 특별 강연, 연구 논문 발표 및 우수 연구 시상, 최신 장비 및 솔루션 전시 부스 운영 등 영상의학 분야의 첨단 기술 도입 사례와 임상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와 함께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의 회장단 및 임원진들은 성공적인 춘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연수강좌 및 보수교육을 통한 회원들과의 교류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술과 교육을 선도하는 학회로서 앞으로 회원들의 연구지원을 위한 정책 및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수준 높은 연구활동을 통한 회원들과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2025년도 1차 보수교육 및 제30차 정기총회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회장 김승태)는 3월 15일 토요일 경희의료원 6층 인산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1차 보수교육 및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보수교육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김창욱 법제이사가 ‘파노라마 관련 법령해석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바이엘 심우열 강사가 ‘알고 쓰는 조영제 사용’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여 회원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부 정기총회에서는 박정빈 회원(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이 최우수 학술상과 협회에서 수여하는 구연상을 수상하였고 박승환 회원(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과 소준호 회원(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이 각각 우수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본회에서는 37명으로 성원이 보고된 가운데 전자 총회 회의록 접수와 2024년 회무 및 사업 보고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김현영 감사가 회원들 앞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총회 안건은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으로 앞으로 총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원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회원들의 요청 하에 상정된 안건이었다. 김승태 의장의 순조로운 진행에 안건심의를 모두 마친 후 회원들의 폐회 요청과 재정에 따라 제30차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JRC2025 통해 일본 유방 영상 검사 인증기관과 교류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회장 강병삼)는 4월 1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JRC2025에 참석하여, 지난해에 이어 일본 유방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KSRS), JRC2025에서 국제학술지 Radiological Physics and Technology(RPT)」 공식 조인식 체결

대한방사선과학회(KSRS)는 4월 13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2025 일본방사선학회 연합대회(Japan Radiology Congress, JRC2025)에서 국제학술지 「Radiological Physics and Technology(RPT)」 공동 발행을 위한 공식 조인식을 체결하였다.

RPT는 일본방사선기술학회(JSRT), 일본의학물리학회(JSMP), 아시아오세아니아의학물리학회(AFOMP)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로서 방사선 물리 및 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저널이다. 2023년부터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 SCOPUS, PubMed 등에 등재되었으며, 최근에는 Impact Factor 1.7을 기록하는 등 학술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인식은 대한방사선과학회가 RPT의 공식 공동 발행기관으로참여하게 된 역사적인 성과이고, 단순한 학술교류를 넘어 국제학술 생태계의 주요한 축으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방사선과학회(KSRS)는 JSRT, JSMP, AFOMP, IOMP 등 세계 유수의 학술단체들과 함께 저널 발간에 참여하며, 국내 방사선 과학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국제 학술 발표 채널을 마련하였다.

조인식에는 대한방사선과학회 민정환 회장(23대)과 김성철 전 임회장(22대)이 참석하였으며, 김 전임회장은 RPT 공동 발행 추진과 한일 간 지속적인 학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방사선기술학회(JSRT)부터 ‘국제공로상’을 수상하였다.

JRC2025는 등록 인원만 약 15,000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학술대회이며, RSNA(미국), ECR(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방사선 의학 학회로 평가받고 있다. JRC2025 학회를 통해 대한방사선과학회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으며,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연구



영상 검사 인증기관(일본 내 유방 검사와 관련된 의사, 물리학자, 방사선사가 함께하는 단체로 ‘인정 방사선사’ 제도를 주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두 번째 공식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는 두 나라의 유방 검사에서의 최근 관심 분야와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모신세시스(tomo-synthesis)의 활용과 관련하여 보험수가 문제, 피폭 우려, 판독 시간 증가, 데이터 용량 증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진료 효율성과 환자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방향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발전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5월 10일 개최된 ‘2025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일본 측 강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도호쿠대학교 Masahiro Sai 교수가 일본 병원에서도 이루어지는 QC에 대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 후에는 ZOOM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이 예정되어있고 이를 위한 번역 및 통역은 학회 국제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이루어진 이번 두 기관의 만남은 서로에게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류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의 유방 영상기술 발전 및 임상 적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이에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는 앞으로도 국제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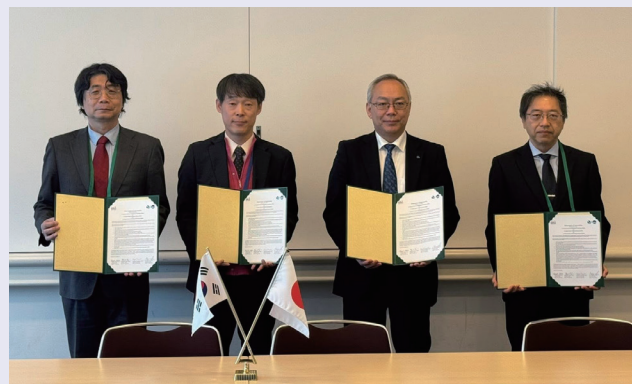
자들의 활발한 참여 또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5월 10일(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개최된 제 47회 2025년도 대한방사선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국제 세션 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국제 세션에 초청받은 일본방사선기술학회(JSRT) 대표이사이자 오사카대학교(University of Osaka) 교수인 Professor Takayuki Ishida가 Radiological Physics and Technology (RPT) Journal에 대해 직접 소개하는 특별강연을 진행하였다.

RPT membership 기관의 공식 참여는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기회 확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 방사선 과학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방사선기술과학 분야에서 최초로 SCOPUS 급 국제학술지를 발간한 학술단체로서 대한방사선과학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방사선과학회는 RPT와의 조인식을 계기로 한국 방사선과학이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며, 글로벌 학술 협력과 연구 생태계 확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47회 2025년 대한 방사선 과학회 학술
Radiological Science in Harmony : 융합이 만드는 의료의 미래
2025.05.10 (토) 12:30 ~18:00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5층 김부업홀



대한CT영상기술학회

2025 대한CT영상기술학회 제26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영상 그 이상의 가치, CT로 여는 의료의 미래’

대한CT영상기술학회(회장 김정훈)는 4월 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회원 논문 발표 및 의료 AI 특별강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으며, 본 학회는 CT 영상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며 AI 시대의 CT 영상기술 변화와 대응에 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13편의 회원 연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총 2개의 강연이 진행되어, CT 기술의 최신 경향과 임상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양동현 교수의 ‘의료 AI 현재와 미래’ 강연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강연은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AI 기반 영상 판독 및 3D 재구성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의료 시스템과 미래의 영상 판독 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본 학회는 회원 참여형 콘텐츠로 ‘AI와 CT 방사선사의 일상’을 주제로 한 4컷 만화 공모전을 기획·운영하였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8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현장에 전시되어 많은 관심을 모았다. AI가 적용 될 미래의 CT 검사에 대한 오해, 환자와의 소통, 방사선사의 고민 등을 위트 있게 풀어낸 작품들은 참석자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대한CT영상기술학회는 앞으로도 CT 영상기술의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외 학술교류를 적극 이어 갈 계획이다.

학술대회 논문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학술 대상: 김성일(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흥선 학술상: 정석현(전남대학교병원)

최우수 학술상: 김현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우수 학술상: 윤승민(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학술 장려상: 권대국(서울대학교병원), 김재현(원주세브란스기독



병원), 이서윤(서울대학교병원), 김강한(서울아산병원)

CT 구연상: 김성일(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현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2025 MRI 안전관리연수강좌 개최 ‘임상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4월 27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MRI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5 MRI 안전관리 연수강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는 MRI 검사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방사선사, 의료기관 관리자, 방사선과 학생, MRI 협력업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MRI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강좌는 ▲MRI 관련 환자안전사고 보고사례 및 예방전략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재준) ▲조영제 과민반응과 대응 (서울대학교병원 김신령) ▲인력과 환경에 대한 구축 (세브란스병원 서동원) ▲특수환자와 임플란트 (고대구로병원 유은수) ▲자기장과의 위험한 상호작용 (삼성서울병원 박진석) ▲가이드라인과 임상사례 분석 (삼성서울병원 김이슬)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김이슬 선생님의 가이드라인과 임상사례분석 교육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최근 도입이 늘고 있는 MR Conditional 이식 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 그리고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에 따른 최신 가이드라인도 소개되어, 교육 참석자들의 임상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김준규 회장은 “MRI 안전은 단지 장비운영자의 몫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책임이며, 이번 연수강좌는 그런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적인 교육과 학술프로그램을 통해서 MRI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학회에서 제작한 MRI 안전가이드북이 배포되었는데, 이 가이드북은 국내외 MRI 안전지침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제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로써 현장 의료진의 자율적 학습 및 병원 내 교육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학회측은 안전관리 연수강좌는 2023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열리는 학회를 대표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향후 다



양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 및 LEVEL 1 안전 동영상 개발을 통해 MRI 분야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을 계속이라고 전하였다.

이번 강좌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보수교육 이수 평점 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교육평점 4점과 교육인증서가 부여되었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성료 ‘디지털 의료영상의 새로운 미래를 그린다’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5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동 1층 윤덕병홀에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대면과 온라인이 병행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임상 방사선사, 연구자, 교수진은 물론 대학(전공)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전 등록 400명 전원이 마감되는 높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연수강좌는 정유철 강사(기초과학연구원)의 국내 중이온입자가속기의 전반적인 개요 설명이었다. 이는 국내 중이온입자가속기 구축 현황과 함께 방사선사의 실무 적용 가능성, 관련 임상 역할 확대 방안 등이 소개되어 많은 관심과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김명성 강사(국립암센터) 팀장의 ‘우리 학회의 나아갈 길’에 관한 미래전략 연수강좌도 많은 회원의



관심을 받았다. 이 강좌에서는 LLM 언어 기술의 이해 및 영상 판독 지원 기술의 최신 사례와 함께, 우리 학회의 미래 전략 체계 변화 등 학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학술발표 부분 또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어 회원들의 폭넓은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 각지 대학에서 참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각각의 발표 주제는 AI 영상 분석, 영상 품질 향상, 의료영상 실습 교육 등 현장 밀착형이었으며, 다양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활발히 오갔다. 김광수 회장(서울아산병원)은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끊임없이 방사선사의 미래 역할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 임상에서 연결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학회는 앞으로도 교육·연구·실무를 아우르는 지식 공동체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디지털 의료영상 분야의 최신 기술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공유하고, 방사선사의 역할과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학문적 소통과 실무 중심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는 교육 및 연구와 임상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디지털 의료영상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갈 것이다.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2025년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성황리에 개최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회장 정희동)는 5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양일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2025년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방사선사 420여 명과 함께 태국 초청 방사선사 7명, 국내 4개 대학 재학생 22명이 참석해 학술 교류의 장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일본과의 국제학술교류에

이어, 올해는 태국과의 첫 학술교류가 이루어졌으며, 학술대회 전에는 태국혈관중재방사선학회(TSVIR) 소속 PIRAYA SUKSIVAKORN 위원 외 6인이 참석한 간담회가 진행되어 양국 간 학술 교류의 방향성과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총 31편의 논문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전문 논문 9편, 초록 2편, Case of the Year 11편, 포스터 3편, 태국 발표 논문 2편, 재학생 논문 4편 등이 포함되었다. 학회는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다양한 연구와 임상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태국에서 초청된 발표자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Evaluation of scattered radiation distribution and personal dose for coil embolization of intracranial aneurysms」, Chanapa Fungchukiat(Prince of Songkla University, Thailand)
- 「Role of radiographer to maximize potential of Angio-CT」, Panida Khongpennit(King Chulalongkorn Memorial Hospital, Thailand)

학술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 논문상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동맥경류 화학색전술(TACE) 치료 반응 예측 모델 개발: Gradient boosting 기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구」, 박종운(서울아산병원)

우수 논문상

- 「마이크로카테터의 열 성형 시 열원에 따른 형태 유지력과 코팅 변형 평가」, 김성엽(서울아산병원)
- 「중심정맥관의 조영제 고속 주입 시 한계 압력 및 임상 실태 조사: 안전한 사용 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서정원(아주대학교의료원)

우수 구연상

- 「조영제 희석 농도에 따른 Flow diverter stent의 시각화 영향

분석」, 정준영(전남대학교병원)

- 「중심정맥포트 삽입 후 봉합 방법에 따른 흉터 평가: Nylon 봉합과 흡수성 봉합사 - 피부접착제 사용의 비교」, 양대승(분당서울대학교병원)

Case of year 상

- 「폐 냉동 절제술(Lung cryoablation)」, 김성곤(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중증 하지동맥질환에서 반복적 PTA 치료 경험: Atherectomy 및 약물방출풍선(DCB) 치료의 역할」, 김재훈(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Klippel-Trenaunay Syndrome(KTS) 환자에서 Embryonic marginal vein에 대한 Venaseal closure device의 치료적 유용성」, 오승재(삼성서울병원)

전문학회 협의회장상

- 김종호(서울보라매병원)

정희동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인터벤션 영상의학의 흐름과 임상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통해 회원 간 지식과 경험이 활발히 교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해외 연자 및 국내 재학생들의 발표는 학술의 질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방사선사로서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학회의 발전은 회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지지를 통해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학회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2025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초음파 의료영상 분야의 학술교류를 위한 2025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종합학술대회가 5월 18일(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대강당 및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는 회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초음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돋보인 자리였다.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구혜정 회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초음파를 수행하는 방사선사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전하며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특히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격려 인사와 함께 협회 지원금을 전달하며, ‘초음파 분야 방사선사의 권익과 활동 영역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축사를 전했다.

연제 발표(좌장: 남궁장순, 송파본내과)

이어 학생 및 회원의 연제 및 증례 발표가 있었다. 총 7편의 연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임상 및 연구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회원 부문

최우수상: 이승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초음파를 이용한 조직검사 시 포름알데히드(HCHO) 노출 감소를 위한 최적의 환경 제언: 변수(공조, 온도, 포르말린 용기 유형) 분석」



우수상: 고은주(기쁨병원 영상의학과), 「급성 우하복부 통증 환자의 다양한 초음파 증례」

어윤선(이담외과병원), 「반복된 인조혈관 폐색 환자, 자가혈관으로 전환: 초음파 재평가가 바꾼 투석 접근」

장려상: 신민준(동의대학교 보건의과학과), 「IoU 기반 Attention UNet을 활용한 유방 초음파 병변 자동 분할 모델 개발」

학생 부문

최우수상: 어주영(대구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초음파 탐촉자 및 고정 방식에 따른 팬텀 영상 재현성 정량평가」

우수상: 남경우(동의대학교 방사선학과), 「초음파 영상 기반 GLCM 텍스처 분석을 통한 신장 및 병변 조직의 정량적 평가」

장려상: 박정주(원광보건대학교 방사선과), 「Rest와 Valsalva 조작에서 좌심실 유입 혈류 속도 비교 연구」

특강 & Live Scan 세션

또한 오후 특강 시간에는 이론 강의와 더불어 Live scan 시연이 함께 이뤄져 회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더욱 알찬 시간이 되었다.

혈관 초음파: 이철형(삼성서울병원)

근골격 초음파: 옥성호(속편한내과)

실습 중심 Hands-on 교육

세미나실에서 별도로 마련된 Hands-on 세션에서는 직접 장비를 다뤄보며 실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오후에는 우수 발표 시상과 함께 폐회사가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행사가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앞으로도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며, 실질적 학술 교류의 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바쁜 일정 속에도 참여해준 모든 발표자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Internship _ 36

해외 방사선학과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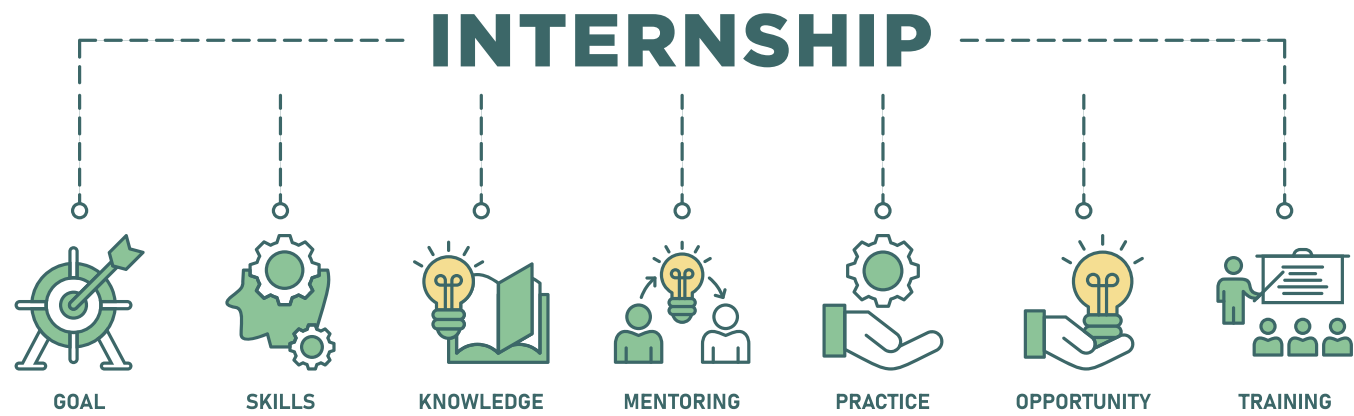
Study _ 41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

History _ 46

유리로 시작한 엑스선 영상 기록 매체

WITH KRTA



해외 방사선학과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글 김상진(서울대학교병원)

세계화, 정보화 추세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서울대학교 영상학과 내 국제 업무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해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서론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많은 국내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해외 자매대학 내지는 그 외 많은 외국 관련학과 대학교 등에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점 인정 프로그램,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내 대학생들을 단기 혹은 장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국제화, 세계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호응도 또한 높다. 이러한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는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 전문 지식 함양, 그리고 국제 감각과 국제적인 소양을 골고루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은 해외의 많은 대학생이 장단기적으로 한국의 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국내 대학교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적극 반기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해외 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서울대학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도 다양한 해외 대학교 방사선학과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단지 병원 홍보를 넘어서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 다양성 수용, 의료 국제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해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가 수년간 실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여러 해외 대학교와도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내에 있는 국제 업무팀에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해외 방사선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관리 운영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제 업무팀 운영

영상의학과 내에서 운영하는 국제 업무팀은 필자가 팀장으로 팀원 10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팀원은 각 Unit(일반촬영, 투시, CT, MRI, 소아 영상의학과, 혈관조영실, 초음파 등)별로 1명씩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업무팀원은 각 Unit의 내부적인 프로그램 스케줄 관련해서 외국 실습 학생을 직접 관리한다. 팀 운영의 목적은 해외 대학교 방사선학과와 해외 의료기관의 임상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교류 및 협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와 최첨단 의료 장비의 운영과 방사선학적 의료 기술의 서비스 노하우를 제공하고, 각 Unit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영상의학과와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방사선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국제 업무팀은 해외 방사선학과 대학들과 해외 의료기관과의 국제 교류 기획, 해외 방사선학과 학생 실습 및 임상 방사선사 연수

업무 담당, 영어 논문작성법 강의, 해외 방사선사 초청 강연, 해외 방문단 의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방사선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습 인원은 최대 6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인턴십 프로그램 기간은 3~4주로 운영하고 있다. 실습 과과는 영상의학과와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며, 방사선종양학과와 영상치의학과도 실습 일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외 대학교 측에서 특정 Unit의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고려하여 프로그램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학생이 일반촬영 혹은 CT, MRI 등에 특별한 실습 일정을 사전에 요청하면 최대한 반영하여 전체적인 스케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Visiting observation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Unit에서 일정 기간 심화 연수를 원하는 경우 진행하고 있다.

본원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의 의미

매년 방문하는 해외 학생들의 개인적인 프로필을 확인해 보면 이미 본국에서 인턴십 과정을 하고 한국 의료기관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료 시스템 경험을 위해서 방문하고 있다. 즉 본국의 의료시스템과 다른 한국의 의료업무 시스템과 환자 응대 방식, 영상의학과 운영 체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인력 근무시스템, 환자 안내 동선 흐름, 검사 방법, 환자 안전 등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하게 되며 한국 의료 문화 및 의료서비스를 이해할 수도 있다. 다



인턴십 참여 해외 학생 소개 시간

시 말해서 한국 방사선사들의 환자에 대한 응대 태도, 환자 중심 케어 방식 등 의료 문화적 차이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 학생 본인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한국 병원에서의 임상 적응을 비교하면서 임상 역량을 폭넓게 키울 수 있으며, 한국 영상의학과에서만 특별히 하는 검사 기법 케이스 등을 접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영상의학과의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 학생들 중 일부는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본원 방사선사 선생님들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관계로 영어를 직접 해외 학생들과 대화하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실습을 위한 체계적이고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의 준비

해외 학생들이 국내 병원에서 효과적인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원에 참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Unit별 로테이션 시스템, 멘토링 및 피드백 세션과 선택 사항으로서 문화 체험 정보제공 등이 있다.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서울대학교병원 과거의 역사와 현재, 미래가 담긴 병원 소개 동영상 소개, 영상의학과 시스템 소개(직원 구성원, 장비 현황 등), 실습 규칙 사항(출퇴근, 식사 시간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규정(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복장 규정, 응급상황 대응 등 기본 사항에 대한 정리된 소개의 시간을 갖는다.

2. Unit별 로테이션 시스템: 각 Unit(일반촬영, 투시, CT, MRI, 소아 영상학과, 혈관조영실, 초음파 등) 주요 부서를 순환하며 실습 소개와 각 Unit에서의 검사 지식, 환자 응대 서비스 관찰, 환자 위험사고 방지 문화(낙상 방지, 다양한 사고 방지 등) 등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 방사선사 선생님들과 논의/대화 및 다양한 정보 교환 등의 기회가 있다.

3. 멘토링 및 피드백 세션: 영상의학과의 각 Unit에는 국제 업무 팀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외국 학생과 국제 업무 팀원이 1:1 멘토 역할을 하여 실습 가이드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습생의 문의 대응, 스케줄 조율, 의문 사항 혹은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 업무팀에서는 각 Unit별 국제 업무 팀원을 배치하여 상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4.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주간 리뷰를 통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실습 완료 후 공식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실습생이 자국 대학병원 또는 여러 공공병원 지원 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된다고 한다.

5. 선택사항으로서 병원 생활 외에도 문화 정보를 제공하여 주말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 지역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해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

해외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는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이다. 설문 조사의 문구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 전반적인 만족도 (1~5점 척도)
-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가장 유익했던 부분은?
-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불만이 있었던 사항은?

2. 실습 과정에 대한 설문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업무 지식을 배웠나요?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의 경험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3. 본 인턴십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의견

- 프로그램이 개선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 미래 참가자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해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조사의 효과

설문 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차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며,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요소(예: 업무 내용, 한국 방사선사의 교육 지원, 네트워크 형성 등)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예: 행정 절차, 스케줄 문제, 적응 문제 등)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참가자의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이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에 얼마나 만족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프로그램 참여 관련한 추천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해외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설문조사는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향후 운영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학생, 대학, 병원 모두에게 유익한 인턴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해외 대학생 실습 유치와 효과적인 실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향후 계획안

현재까지 본원 영상의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많은 국제 업무 팀원과 여러 동료 선생님들의 업무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해외 대학교와의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업데이트된 향후 계획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는 한층더 국제화된 실습 프로그램 개발이다. 실습 내용이 체계적이고, Unit별 로테이션, 멘토링, 케이스 리뷰, 평가 등이 포함된 표준 커리큘럼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단순 참관(observership)을 넘는 참여형 실습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상시 개발이다. 세 번째는 영어 기반 프로그램 및 의사소통 환경 확보이다. 예를 들면 본원의 많은 영어 안내지도 자료 제공,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 세션 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턴십 참여 해외 학생들과 필자가 함께한 기념 촬영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 후 촬영한 기념사진

맺는말

해외 대학교 방사선학과 및 해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원과의 연계 프로그램과 국제화 교육은 다양한 해외 국가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에서 필수적인 역량을 키울 중요한 기회이다. 해외 대학교는 지속적으로 본원 의료기관과 교류를 확대, 유지하려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환경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해외 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원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해외의 많은 대학교는 국제화 교육의 강화와 국제 교류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다. 해외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국제화 교육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에서 필수적인 역량을 키울 중요한 기회이다. 서울대학

교병원 영상의학과도 다양한 해외 대학교 방사선학과와의 파트너십 확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여러 대학교 방사선학과 및 임상 의료기관과 본원과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의해서 안정적인 실습생 및 연수생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더 활성화된 교류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향후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추진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본원에서는 제공할 예정이다. 본원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지 병원 홍보를 넘어서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문화 다양성 수용, 의료 국제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K**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

글 최관우(원광보건대학교)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단일 표본 T검정의 통계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ChatGPT는 연구자들이 통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통계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보조 도구이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구현할 수 없는 일을 구현한다.

그러나 활용에 있어서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연구자이기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병행되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 부분이 문헌분석인 경우도 있고, 연구 디자인 또는 글쓰기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통계분석 앞에서 벽에 부딪힌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손에 쥐고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통계분석을 꼭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서부터, 어떤 통계 기법을 선택해야 할지, 프로그램은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그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서 배워야 할지... 막히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물어 물어 어렵사리 통계분석을 마치더라도 분석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논문에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또한 매

우 막막하다. 이렇다 보니 통계는 연구의 설계부터 결과 해석까지 전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연구 수행에 있어 통계는 핵심이다. 왜냐하면 통계는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주장에 근거를 제시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즉,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통계를 통해 그 숫자는 의미가 되며 이를 통해 연구자의 가설을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 비전공자인 대부분의 연구자에게 통계는 매우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확률 이론, 선형대수, 미적분 등의 수학적 배경 지식이 없

으면 통계 기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평균과 분산, 회귀 계수 등의 통계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p-value, 신뢰구간, 다중 공선성 같은 통계용어는 많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엑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R, Python 등)은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낯설고 복잡함으로 인해 큰 좌절감이 느껴진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에게 통계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영역으로 여겨지며 어쩔 수 없이 분석이 필요한 경우, 외부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거나 단순 분석만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이러한 통계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주목받고 있는 도구가 바로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언어모델이다. ChatGPT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AI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통계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고, 관련 코드를 작성해주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도 도와준다.

예를 들어 “독립표본 t-검정이 무엇이야?”라고 질문하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를 들어주고, “Python으로 회귀 분석 코드를 짜줘”라고 하면 분석 코드를 작성해주어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결과 해석이 헷갈릴 때 “p-value가 0.03이면 무슨 의미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려주며, 그 해석을 논문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검정 결과를 논문에 어떻게 써야 해?”라고 물어보면 예시 문장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ChatGPT의 기능 덕분에 통계에 대한 진입장벽이 이전보다 확실히 낮아졌으며, 통계를 처음 배우는 사람도 손쉽게 기본 개념을 익히고 직접 분석에 도전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ChatGPT를 이용한다고 하여 통계의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생성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한 질문은 잘 처리하지만 복잡한 연구 설계는 파악하지 못할 수 있으며, 출력되는 정보가 매우 간단하여 통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다면 적용하기 어렵고, ChatGPT가 생성한 문장을 그대로 논문에 사용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hatGPT를 이용하더라도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석결과도 반드시 전문가나 전문서적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ChatGPT를 활용한 통계분석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직접 실험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이 시행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간단하게 출력된다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그 결과의 정확성만큼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ChatGPT를 활용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연구 진행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은 **표1**과 같으며, 이번 호는 첫 번째 시간으로 ChatGPT를 이용한 단일 표본 T검정의 통계분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집단의 크기 비교	단일 표본 T검정(one-sample t-test)
두집단의 크기 비교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세집단 이상의 크기 비교	일원배치분산분석

표1. 연구 진행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방법

특정 장치의 CT number 값이 50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정말 환자들을 대상으로 CT 검사를 하여 그 장기를 측정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 증명하는 연구를 계획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기준값인 50이 있을 것이고, 검사하여 측정한 여러 값이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내가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들이 기준값인 50과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통계분석 방법이 바로 단일 표본 T검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라면 본인의 연구 데이터에 어떤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때 ChatGPT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통계분석 방법 결정할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ChatGPT 사이트에 접속한 후 메시지 창에 본인의 연구계획을 입력하면 끝이다. 즉, ① 메시지 창에 “특정 장치의 CT number 값이 50으로 알려져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환자들을 대상으로 CT 검사를 하여 그 장기를 측정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

증명하고 싶어, 어떤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라고 입력하고 ② 실행 버튼(Enter)을 누르면 ChatGPT가 아래와 같이 통계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분석 절차와 분석 코드, 해석과 추가 팁까지 응답을 생성한다(**그림1,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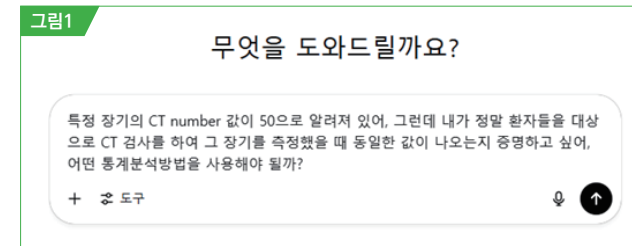


그림1, 그림2.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 예시. 메시지 창에 본인의 연구계획을 입력한 후 응답 생성을 기다린다.

이와 같이, 통계분석 방법이 결정됐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트를 설계하는 일이다. 이 과정 또한 통계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라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통계분석 방법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데이터 시트를 설계하여 입력하였을 경우 잘못된 시트 설계로 인해 통계분석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ChatGPT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 시트를 설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험 데이터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기 보다는 엑셀에 데이터를 일단 입력한 후 불러오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엑셀의 데이터 편집기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연구자는 통계분석 기법마다 엑셀

에서 데이터 입력 시트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ChatGPT를 이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통계분석 방법의 데이터 입력 시트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즉, ① 메시지 창에 “단일 표본 T검정을 위한 데이터 입력 시트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라고 입력하고 ② 실행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단일 표본 T검정에 맞는 데이터 입력 시트가 만들어지고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한 후 바로 사용하면 된다(**그림3,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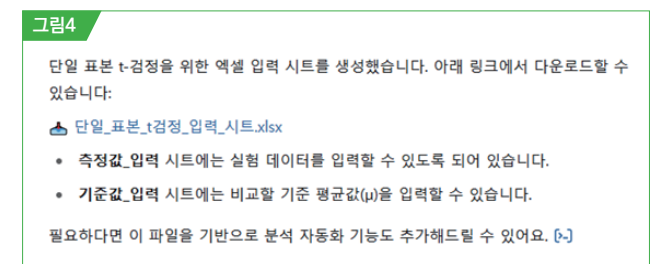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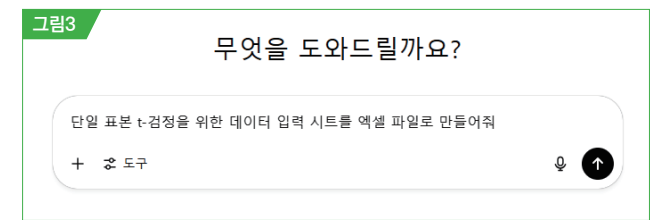


그림3, 그림4. ChatGPT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 시트 설계 예시.

참고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보면 단일 표본 T검정의 데이터 입력 시트는 두 개의 탭(측정값 입력과 기준값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입력은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은 측정값 입력 탭의 측정값 항목에 입력하고, 기준값은 기준값 입력 탭의 기준값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된다(**그림5, 그림6**).

따라서, 처음 가정과 같이 특정 장치의 CT number 값이 50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가 정말 환자들을 대상으로 CT 검사를 하여 그 장기를 측정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 증명하는 연구를 계획하였다고 한다면, 기준값은 기준값 입력 탭을 클릭한 후 기준값 항목에 50을 입력하고, 측정값은 각 CT 검사 환자 영상에서 장치의 CT number 값을 측정한 후 측정값 입력 탭을 클릭하여 측정값 항목에 입력하면 된다.

그림5

	A	B	C	D	E	F
1	측정값	비교				
2		측정값 입력				
3		측정값 입력				
4		측정값 입력				
5		측정값 입력				
6		측정값 입력				
7		측정값 입력				
8		측정값 입력				
9		측정값 입력				
10		측정값 입력				
11		측정값 입력				
12		측정값 입력				
13		측정값 입력				
14		측정값 입력				
15		측정값 입력				
16		측정값 입력				
17		측정값 입력				

그림6

	A	B	C	D	E	F
1	항목	값				
2	기준값 (μ)					
3	설명	비교하고자 하는 기준 평균값을 입력하세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림5, 그림6. ChatGPT를 이용해 생성한 단일 표본 T검정을 위한 엑셀 시트 활용 방법.

실험 데이터를 입력하여 연구 데이터 파일이 완성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통계분석을 수행하는 일이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SPSS를 이용하여 동일 파일의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이다(그림7). 참고로 단일 표본과 일표본은 한 집단의 표본이라

그림7

일표본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CT number	69	50.45	3.118	.375

일표본 검정					
	검정값 = 50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CT number	1.197	68	.235	.449	하한 -.30 상한 1.20

그림7. 연구 데이터 파일 완성 후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를 이용해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는 의미로 동일 의미이다.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은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쉽다. 즉, ① 완성된 연구 데이터 파일을 메시지 창에 끌어다 놓은 다음 ②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해 줘”라고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그림8).

그러면 ChatGPT가 데이터를 분석한 후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 결과를 응답해 준다(그림9).

그림8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구 데이터.xlsx 스프레드시트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해줘

+ 도구

그림8.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 예시

그림9

단일 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t-통계량: 1.197
- p-값: 0.235

해석:

- 기준값(μ) = 50과 측정값들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 p-값이 0.05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측정된 값들의 평균은 기준값 50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원하시면 정규성 검정이나 시각화도 추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x]

그림9. ChatGPT가 데이터 분석 후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내놓은 통계분석 결과

ChatGPT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똑똑한 조력자일 뿐,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도구는 아니기에 궁극적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응용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SPSS와 ChatGPT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가 ChatGPT에 비해 좀 더 많은 정보와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통계량이나 유의수준은 SPSS나 ChatGPT 모두 정확히 일치한다. 즉, ChatGPT를 사용하더라도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과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SPSS에서 제공하는 통계지표를 ChatGPT에서도 생성할 수 있다.

연구 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검정 결과를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일이다. 이때 ChatGPT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① 메시지 창에 “위 검정 결과를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지의 투고 형식에 맞게 작성해 줘”라고 입력하고 ②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투고하려는 학술지의 투고 형식에 맞게 검정 결과가 작성되어 출력된다(그림10, 그림11).

이번 호는 ChatGPT를 이용한 통계분석의 첫 번째 시간으로 단일 표본 T검정의 통계분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필자가 이번 호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ChatGPT는 연구자들이 통계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통계 개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보조 도구라는 점이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문 통계분석 프로그램이 구현할 수 없는 일을 구현한다는 점에 매우 인상이 깊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ChatGPT가 많은 연구자의 수고스러움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활용에 있어서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은 연구자이기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병행되어야 한다. ChatGPT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는 똑똑한 조력자일 뿐,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도구는 아니기에 궁극적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통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응용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K

그림10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위 검정 결과를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지의 투고 형식에 맞게 작성해줘

+ 도구

그림11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지(Korean Journal of Magnetic Resonance in Medical Sciences, KJMRS)의 투고 형식에 맞추어 단일 표본 t-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이 기준값($\mu = 50$)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단일 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다. 검정 결과, t-통계량은 1.20이었으며, p-값은 0.235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참고사항:

- 통계 분석은 Python의 Sci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 p-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따르면, 통계 결과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된 통계 소프트웨어와 분석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그림10, 그림11. ChatGPT를 이용해 얻은 검정 결과를 투고 학술지 형식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 예시

유리로 시작한 엑스선 영상 기록 매체

글 김건중(제15대, 16대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뢴트겐은 1895년 11월 8일 엑스선을 발견한 후, 그해 12월 22일 아내의 반지 낀 손을 엑스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대'의 서막을 알린 세계 최초의 인체 엑스선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 매체는 투명 유리판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한 '유리 건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리로 시작한 엑스선 영상 기록 매체, 즉 엑스선 영상 지지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뢴트겐이 엑스선을 처음으로 발견한 날은 1895년 11월 8일입니다. 실험 중 바륨 백금 시안화물(BaPt(CN)₆)이 정체불명의 선에 의해 빛나는 현상을 목격한 순간을 엑스선이 처음 발견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후 뢰트겐은 약 한 달 반 동안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실험을 반복하며 관찰과 기록에 몰두하였습

니다. 그리고 1895년 12월 22일, 그는 부인의 손을 촬영해 엑스선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이 영상에는 금속 반지와 뼈가 선명하게 보였고, 세계 최초의 인체 엑스선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그림 1).

이 한 장의 사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시대'의 서막을 알렸

으며, 당시 학계와 언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영상은 무엇에 기록하였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명할 소재입니다.

뢴트겐이 촬영한 세계 최초의 인체 엑스선 사진은 유리 원판 상태로 독일 뢰트겐 박물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유리 원판의 엑스선 영상은 복제품으로 의료 역사 전시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 매체는 투명 유리판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한 '유리 건판(dry plate)'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리 건판은 1871년에 등장하여 '습식 건판(wet plate)'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널리 쓰이게 되었지만, 크고 무겁고 잘 깨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야전에서 발생하는 충격, 진동, 운반 과정에서 건판이 파손되는 일이 빈번해 부상병의 영상 손실과 치료 지연이 많았습니다.

유리 건판에서 필름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14년, 유리건판을 대체하기 위해 질산섬유소(nitrocellulose) 필름이 개발됩니다. 이 필름은 유연하고 가벼워 휴대와 촬영이 용이해 특히 전쟁터에서는 깨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야전에서 휴대가 간편해 촬영 편의성을 크게 높여 각광받았지만, 높은 인화성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질산섬유소는 인화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건조하거나 고온의 조건에서 자연 발화가 발생하고, 필름 자체에 불이 붙으면 끄기도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필름 저장고 화재가 발생한 탓에 귀중한 영상이 소실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림1. 뢰트겐이 1895년 11월 8일 엑스선을 발견한 지 한 달 반 후인 12월 22일 부인의 손을 처음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최초의 엑스선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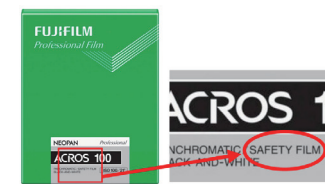


그림2. 예전 엑스선 필름 박스에 쓰여진 Safety Film(안전 필름) 표시

안전 필름의 등장

1924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트(cellulose triacetate) 기반의 필름 지지체가 등장합니다. 화재 위험성, 필름의 변형 등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필름 박스에 '안전 필름(safety film)'이라는 문구를 인쇄까지 했습니다(그림 2).

이는 단지 마케팅 차원이 아닌 실제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필름 회사들은 필름 박스에 '안전 필름'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화재에 취약했던 이전의 필름과 차별화를 명확히 하려 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일하던 시절에 필름 박스에 인쇄된 '안전 필름'이라는 글자를 보며 '뭐가 안전하다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폴리에스터 지지체

그러다 196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지지체인 폴리에스터(polyester)가 개발되면서

또 한 번의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이 필름 지지체는 물리적 강도가 탁월해서, 현상 과정이나 장기 보관 시 변형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말림, 수축, 갈라짐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의료 영상 기록 매체의 신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시기는 아날로그 필름 기반 의료 영상의 완성기로 평가됩니다.

디지털 영상화로 전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의료 영상 기록 매체에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됩니다. 필름 대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기반의 디지털 영상 저장 및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며, 기존 아날로그 필름 방식이 자취를 감춰 버리고 의료진은 필름 대신 모니터로 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아날로그 필름을 볼 일은 거의 없게 되었지만, 디지털 시스

엑스선 영상 지지체의 변화

시대	지지체	주요 사건 및 특징
1839~1850	은판(Daguerreotype)	• 반사형 사진 영상, 초기 은염 감광재 활용
1850~1910	유리 건판	• 초기에는 습식, 이후 건식으로 진화 • 엑스선 초창기 표준 매체
1895.11.08		• 뢰트겐 엑스선 발견
1895.12.22		• 뢰트겐 부인의 손 촬영(최초 인체 엑스선 사진)
1914~1920 (제1차 세계대전)	질산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필름	• 전쟁 중 유리 건판의 파손 문제 심각성 해소 • 유리 건판 대체, 휴대성 향상 등 유연성이 높아짐 • 인화성 높아 필름 저장고 화재 빈발
1924~1960s	트리아세틸셀룰로오스(cellulose triacetate)	• 인화성으로부터 '안전 필름' 시대로 • 필름 보관 안정성 확보 • 필름 제조사들이 필름 박스에 '안전 필름' 표시 • 인화성 필름과의 명확한 구분
1960~현재	폴리에스터(polyester)	• 강도·안정성 우수, 장기 보관에 적합 • 필름 사용 급감, 일부 건식 필름(dry film)만 잔존
1990년대 후반	CRT 모니터	• 디지털 영상화로 전환(PACS 도입 및 보편화 시작)
2000~2005	LCD 모니터	• 1~2메가픽셀 보조용으로 도입
2005~2010		• 5메가픽셀 진단용으로 사용 시작 • 의료 영상 분야에서 CRT 퇴출

템과 연동한 건식 필름(dry film)은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습판과 건판의 다른 점은?

습판(wet plate)은 한국어 용어로는 습식 건판 또는 습판이라고 합니다(본 설명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습판이라고 함). 건판(dry plate)의 한국어 용어로 건식 건판 또는 건판이라고 합니다. 습판과 건판의 다른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851년경에 출현한 습판은 취급자가 암실에서 콜로디온을 유리 판에 직접 도포하고, 뒤이어 질산은 용액(점성)을 도포해 마르기 전에 바로 촬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질산은의 감광성이 빠르게 소실되기 때문에 즉시 노출하는 것이 필수였고 콜로디온과 직산은을 도포하기 위한 암실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습니다.

반면, 1870년대에 등장한 건판은 공장에서 미리 유제를 유리에 도포하여, 건조된 상태에서도 감광성이 유지되면서부터 자유로운 시간에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촬영이 훨씬 간편해져 사진 기술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뢰트겐도 당시 사진 기술의 발전으로 유리 건판을 여러 장 실험실에 갖추고 있어 신속히 엑스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으니 유리 건판도 엑스선 발견에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Essay _ 50

감각의 리밸런싱(Rebalancing), AI 시대의 새로운 일상

Review _ 52

일본방사선기술학회 학술대회(JRC 2025) 참가

Review _ 54

신한FUN 논문조, KIMES 2025 다녀오다!

Review _ 56

충청방사선사연합학술대회에 다녀와서

Interview _ 58

목욕탕에서 생명을 구한 방사선사, 황승연 씨의 용기 있는 순간

Insight _ 60

환자를 위한 한 장의 정확한 영상
- 방사선사 전성배의 전문성과 커리어 성장 이야기

Webtoon _ 61

숨 참으세요

WITH KRTA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서로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거리두기로 물리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감각은 자연스럽게 위축되었습니다. 그 시절, 방사선사로서 환자와의 소통, 동료와의 협업,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일 모두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된 지금,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상상, 그리고 행동의 변화

코로나 이후,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단과 판독, 업무 자동화, 환자 관리 등 방사선사의 일상도 AI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대신해줍니다. 우리는 AI가 제시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더 창의적이고, 더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만이 느끼고 상상하며 행동하는 고유한 감각은 대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AI 시대 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다듬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감각의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각의 리밸런싱이란 무엇인가

'리밸런싱'이란 용어는 원래 투자에서 자산의 비율을 조정해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다시 원래의 목표 비율로 되돌림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의 감각에 적용해보면, 코로나 시기 동안 시각과 정보에만 집중했던 삶에서 벗어나,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다시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생활을 합니다. 반면, 환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의 떨림,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 같은 '비시각적 정보'에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

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감각들을 다시 깨우고,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시대, 감각의 리밸런싱이 왜 중요한가?

AI가 의료 현장에 깊이 들어오면서, 방사선사의 역할은 단순한 기술자에서 환자와 소통하는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와 인간의 감각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는 빠르고 정확하게 영상을 분석할 수 있지만, 환자의 불안한 표정이나 미묘한 통증 호소, 가족의 걱정스러운 눈빛까지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오직 인간만이 감각을 통해 포착하고, 공감하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제시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감각을 잃고 기계의 판단에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감각의 리밸런싱은 AI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인간만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섬세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한 자기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감각의 리밸런싱,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감각의 리밸런싱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의 루틴 바꾸기

출근길, 스마트폰 대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등 소소한 감각으로 평소 놓치던 소리가 새롭게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 중 감각 집중하기

환자와 대화할 때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환자의 표정과 목소리에 집중해서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다가가세요. 촬영 장비를 만질 때는 손끝의 감각에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휴식 시간 활용하기

점심시간에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맛과 향을 음미해 보

세요. 짧은 산책도 즐기세요. 햇살과 바람을 느끼는 것도 감각을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AI와의 협업에서 감각 활용하기

AI가 제시한 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 자신의 경험과 직관을 함께 활용하는 겁니다. 데이터와 감각이 조화를 이룰 때 더 정확하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감각의 리밸런싱이 주는 힘

코로나 시기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작은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일기 쓰기, 방 정리, 샤워나 산책 같은 소소한 행동이 마음을 다잡는 버팀목이 되었죠.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감각의 리밸런싱은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자기 관리 전략입니다.

방사선사에게 감각의 리밸런싱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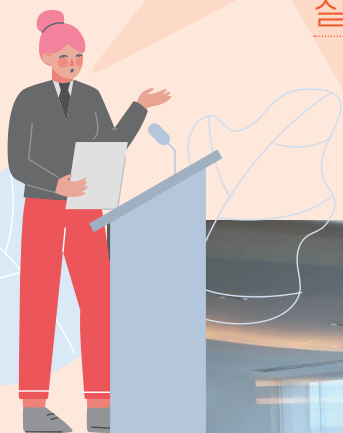
방사선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민감한 순간을 함께 하는 직업입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환자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미묘한 신체 변화를 감지하며, 동료와의 협업에서 신뢰를 쌓는 일은 오직 우리의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감각의 리밸런싱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한 전문가,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 그리고 더 건강한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감각을 돌아보고 균형을 맞추는 일상을 즐겨보세요. 감각의 리밸런싱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더 나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방사선사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감각 하나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AI와 함께하는 미래, 우리의 감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일본방사선기술학회 학술대회(JRC 2025) 참가

글 안희정(신구대학교 방사선학과)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JRC 2022」 이야기를 들은 이후,
학창 시절 내내 꼭 한 번 참여해 보고 싶었던 JRC 학회에
실제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감격스러운 경험이었다.



2025 JRC 참가 기념사진

제84회 「JRC 2025」에서는 ‘Radiology for Everyone’을 주제로 일본방사선기술학회(JSRT), 일본의학물리학회(JSMP), 일본방사선의학회(JRS)가 공동으로 제4회 ICRPT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의료영상·방사선시스템산업협회(JIRA)가 주최하는 국제의료영상기술전(ITEM)이 함께 개최되었다. 「JRC 2025」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요코하마시 파시피코 요코하마에서 진행되었다. 학회 발표를 위해 논문을 작성하고 작년 11월 초에 논문초록을 학회에 제출한 후 채택 결과를 12월 말에 받게 되었다.

학회 첫날, 학회장으로 가는 길에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추계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며 많은 이들이 학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이곳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 솔직히 놀라웠다. 나는 「사이클로트론실 차폐벽 두께 산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작성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발표 후에는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추가 질문을 위해 찾아

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 학회 분위기는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

발표 이후 참석한 국제 의료영상기술전에는 SIMENS, Canon, PHILIPS, GE Healthcare 등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참가하여 풍성한 전시회를 이루고 있었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각종 최신 장비를 다채롭게 전시되어 있었다.

1학년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JRC 2022」 이야기를 들은 이후, 학창 시절 내내 꼭 한 번 참여해 보고 싶었던 JRC 학회에 실제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감격스러운 경험이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큰 학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그 시간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있을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쉽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다시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K



발표 중 질의 응답 시간



신한FUN 논문조, KIMES 2025 다녀오다!

글 선호정·김성빈·이가빈·어호진(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4학년)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4학년 선호정, 김성민, 이가빈, 어호진입니다.
저희는 최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3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9차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직접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KIMES는 뭘까?

KIMES는 국내 최대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회로, 최첨단 의료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상진단 장비 관련 업체와 헬스케어 관련 업체, 의료 정보 관련 업체 등 국내·외 의료산업의 대표기업들이 참가하며, 1,450여 개의 제조사들이 3만 7천여 점의 관련 용품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SRTA와 함께하는 제59차 국제학술대회, 의료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 주제는?

‘의료영상 진단 분야에서의 AI 모델의 임상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최근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은 큰 관심을 받고 있지요? 저희는 특히 GPT-4o라는 최신 AI 모델을 활용해 NEJM Image Challenge를 통해 AI가 실제 의료 영상에서 얼마나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우리 연구의 핵심!

놀랍게도 AI의 정확성은 제공되는 정보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입력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텍스트 정보만 입력했을 때는 오답이 나왔던 사례도, 이미지를 함께 주었을 때 정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상현장에서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보 입력 방식과 환경을 잘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렸지만 값진 시간들!

저희는 3학년 때부터 이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서 점점 흥미와 보람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동안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를 정리하느라 매일 늦게까지 토론했던 날들이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발표 직전 일주일만 다들 거의 밤샘으로 발표 자료랑 대본을 수정하고 연습하느라 정신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상 밖의 반전, 수상의 순간!

총 36편의 발표 중 오직 6편만 구연상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호명되었을 때의 기쁨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

이번 논문 준비를 계기로 방사선학도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AI 분야에서 더 도전해보고 싶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

시상식에서 저희가 상을 받았던 순간이 역시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은 그 순간, 다들 기뻐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반짝반짝 빛나던 눈빛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2025년도 KIMES &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제59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경험은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희 방사선학과와 전통이 되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방사선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멋진 순간들이었습니다. 📸





충청방사선사연합학술대회에 다녀와서

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방사선학과



2025년 5월 31일 제14차 충청방사선사연합학술대회 및
제9차 충청북도방사선사 종합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작년에도 충청북도방사선사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지만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함께한 연합학술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규모도 크고 다양한 부스와 논문 발표가 준비되어 있어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본교 3학년 이유빈 학생과 2학년 정상현 학생이 발표자로 참가했습니다.
이유빈 학생은 '혈관조영술 시 가이드와이어 존재 유무에 따른 조영제 도달 속도와 주입
량 분석'에 대해 발표했고 정상현 학생은 '워머 사용 유무에 따른 조영제 온도 변화'에 대
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유빈 학생은 우수상을 수상하며 저희 모두가 함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학회에서 친구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았지만 이번 발표는 준비 과정부
터 가까이에서 함께해 온 만큼 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대본을 여러
번 연습했던 모습이 떠올라 무대 위에서 발표를 마치는 순간 더 큰 응원의 마음이 생겼
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교수님들의 활약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최소진 교수님께서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충청북도회 회장 표창을 받으셨고 이기백 교수
님께서서는 좌장으로 학회 발표를 이끄셨습니다.

김지혜 교수님께서서는 학생 구연 발표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주셨습니다.

학회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며 본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학생으로서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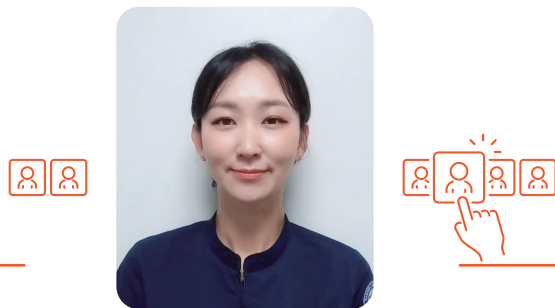
다른 학교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접할 수 있었고 현직 방사선사 선
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며 전공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학술대회에 꾸준히 참여해서 전공에 대한 관심을 더 넓히고 다양한 사람
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K



목욕탕에서 생명을 구한 방사선사, 황승연 방사선사의 용기 있는 순간

긴급한 상황 속 생명을 구한 순간을 말하다



4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여성 이용객을 구조한 방사선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소속 황승연 방사선사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구조에 나서, 귀중한 생명을 구해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A 씨는 병원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게시판에 직접 글을 남기며 황 씨의 행동을 소개했고,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사건은 토요일 오후, 한 목욕탕 온탕에서 발생했다. 한 할머니가 탕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머리카락이 물 위로 떠 있는 것을 발견한 황 씨는 즉시 상황을 인지했다. 탕 안으로 들어가 주변 이용객들과 함께 할머니를 물 밖으로 끌어낸 뒤, 호흡과 의식을 확인하고 젊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황 씨는 연 1회 병원에서 진행되는 심폐소생술(CPR) 교육에서 익힌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가슴 압박을 시행했고, 약 3회 반복 후 할머니는 서서히 호흡을 되찾았다. 그는 할머니를 탕 계단에 앉힌 뒤 안정을 돕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함께 탈의실로 이동을 도왔고, 할머니는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이후 할머니가 현장 세신사에게서 황승연 씨가 한양대병원 방사선사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병원 홈페이지에 직접 칭찬 글을 올렸다. "그날의 용기 있는 행동을 잊지 못할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진심으로 칭찬과 존경을 보낸다."라고 밝혔다.

—Q 그날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되셨나요?

A → 멀리서 들리는 웅성웅성 소리에 욕탕 쪽을 바라보았는데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검은 머리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장난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할머니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급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할머니를 밖으로 옮기고 난간에 눕힌 뒤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심폐소생술 교육이 떠오르며 심정지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곧바로 인근에 있던 젊은 학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30회씩 3번의 가슴 압박을 시행하였고, 다행히 할머니는 서서히 호흡을 되찾으며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고 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해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Q 병원에서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이번 상황을 경험하면서 체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침착하게 호흡을 확인하고 119 신고를 지목해서 요청한 후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마네킹으로 실습을 해 왔는데 실제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Q 이번 일을 계기로 방사선사로서 느낀 보람이나 책임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A → 그날 할머니를 보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과 연세가 비슷하신 저희 어머니가 겹쳐 떠올랐고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주저 없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상황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훈련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 깊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으며 방사선사의 소명을 갖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상황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평소 긴박한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살리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환자가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작은 용기만 있다면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



방사선사 전성배의 전문성과 커리어 성장 이야기 환자를 위한 한 장의 정확한 영상

글 전성배(인천세종병원 영상의학팀)



2019년 입사 이후, 환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병원 영상의학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방사선사로서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장해온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초에서 전문으로: 일반촬영의 의미 있는 변화

방사선사로서 첫 업무는 '기초'라 불리는 일반촬영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전문성과 개선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일반촬영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촬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촬영 프로토콜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부서의 재촬영률을 5%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고 검사 신뢰도를 높이며 진단의 정확성에 기여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투시촬영: 조기진단의 가치를 깨닫다

이후 투시촬영 업무를 맡으며, 위장조영검사를 통해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의 영상, 하나의 검사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태도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CT와 MRI: 기술을 넘어 신뢰로

CT 및 MRI 촬영은 더욱 정교한 기술과 세심한 환자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 안전과 검사 최적화를 최우선

으로 생각하며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CT 검사에서는 방사선 피폭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전문 방사선사 자격을 취득했고, 환자에게 맞춤형 선량을 적용하는 역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최신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학습하며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태도에서 시작된다

전문성이란 단순한 자격이나 기술을 넘어,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촬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전문성의 출발점이라 믿습니다.

제가 노력해온 작은 변화들은 때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진단의 정확성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소중한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앞으로도 저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사선사로서, 기술적 역량은 물론 윤리적 감각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 품질, 더 적은 피폭, 더 빠른 진단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숨 참으세요

30. 컴플레인 中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 휴식 시간, 근무 시간, 파트의 규모에 따라 접수를 간호사 혹은 방사선사가 잠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습을 처음 나갔던 병원에서 처음 마주했던 컴플레인

컴플레인이 커지면 발생하는 최악의 결과는 시작



의료진의 태도로 받는 컴플레인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촬영실은 1시간 후에 본인을 보며 의료진이 비웃었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주치의분이 꼭 부탁하셨던 검사지만, 아픈데 서서 촬영하게 했다고 받는 컴플레인 이나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컴플레인도 받아보고

제22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

가 시험안내

제22회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및 제10회 방사선의학물리사자격시험을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1. 일정 및 장소

회차	지역	시험일	시험장소
1회	수도권(성남)	8월 24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중부권(대전)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영남권(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호남권(광주)		동강대학교 전산교육관
2회	수도권(성남)	11월 30일(일)	신구대학교 동관
	중부권(대전)		건양대 대전 메디컬캠퍼스 죽헌정보관
	영남권(대구)		대구보건대학교 연마관
	호남권(광주)		동강대학교 전산교육관

2. 시험방식

-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시험(CBT)

3. 시험시간

- 90분(문항수: 90문항)

4. 세부일정

1회차	2회차
시험일: 8월 24일(일)	시험일: 11월 30일(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7월 1일(화)~7월 31일(목)	응시원서 접수기간: 10월 1일(수)~10월 31일(금)
수험번호 공지: 8월 8일(금)	수험번호 공지: 11월 7일(금)
합격자 발표: 8월 29일(금)	합격자 발표: 12월 5일(금)

나 응시분야

분야		
① 자기공명영상(MRI) 전문방사선사	⑦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심장)	⑬ 혈관중재 전문방사선사(일반)
② 전산화단층촬영(CT) 전문방사선사	⑧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혈관)	⑭ 핵의학 전문방사선사
③ 유방 전문방사선사	⑨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근골격)	⑮ 방사선안전관리 전문방사선사
④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복부)	⑩ 투시 전문방사선사	⑯ 방사선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⑤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산부인과)	⑪ 영상정보관리 전문방사선사	⑰ 방사선 의학물리사
⑥ 임상초음파 전문방사선사(유방)	⑫ 치료 전문방사선사	

보호자분!! 보호자분의 가족이지 않습니다. 이 이동용 베드는 혼자서 밀기 힘들거든요 올라가실 때 직원 분하고 같이 밀어주세요



그 후 병실에 가자마자 보호자분은 '날 보조사 취급했다' 라고 컴플레인을 거셨고 그걸 듣고 그 선생님은 씩씩하게 미소 지으셨죠



하지만 역시 가장 많이 받는 컴플레인은 얼굴 표정에 미소가 없거나, 말투가 친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 아니냐며 소리를 치시는 분도 자주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의료 서비스라는 말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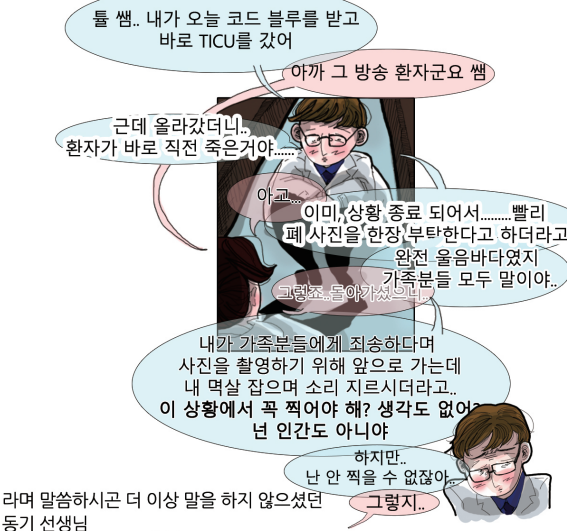


우리들의 생명이란 것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가 생명 자체를 서비스 받는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말 자체가 변질 되어 가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간혹 언론에 기사화 되는 경우와 같이 정말 컴플레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진 분들은, 마음가짐과 다르게 나오는 행동에 속상하고 항상 반성하지만, 다시 이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점점 사무적으로 환자를 대해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변해간 제 자신이 가장 싫었습니다.



라며 말씀하시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셨던 동기 선생님

선생 이상한건 아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사둔건데

힘들텐데 선생 드시구려 줘, 미지근 하지만 조금 시원할거요

고 날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던 오후 한 환자분이 주신 시원함이 남아 있던 커피 하나



그 커피가 간직하던 무언가를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다 시험시간

시간	내용	비고
1교시(10:00~11:30)	권역별 온라인 시험장 운영으로	1) 문항수: 90문항 90분 시험 2) 시험방식: 온라인(CBT)
2교시(12:30~14:00)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u>시간표 및 세부사항 공지</u>	
3교시(15:00~16:30)	회차당 1분야만 응시 가능합니다.(다중분야 응시불가)	

※ 응시인원에 따라 교시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격

『전문방사선사시험원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로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인 자
- ②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미만인 경우, 전문방사선사 양성을 목적으로 협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전문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전문화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③ 방사선 관련 외국의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②번 항목 예시

-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미만인 경우, 임상초음파(복부) 전문방사선사 시험요건
 1. 연수원의 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과정 이수
 2. 사이버 교육의 연수원교육(초음파영상물리) 12시간 전체 이수 또는 연수원의 초음파영상물리 수료(1, 2 조건 모두 충족필요)
 3. 원서접수 마감일 직전까지 응시자격 충족하여야 함.

마 합격자 결정 및 발표

1.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rta.or.kr>)에서 본인이 확인합니다.

3. 기타

- 응시자 시험 관련 이의사항은 시험일로부터 1주일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시험원 홈페이지(<https://krta.or.kr>) - 문의(민원)마당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제출 기간 이후 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응시자로부터 이의 제기된 문항은 폐기함

바 자격증 교부

- 합격 후 홈페이지 (개인정보조회수정)에서 60일 내에 자격증 교부 가능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실물 자격증은 제작 완료 후 90일 내에 원서접수 시 입력하신 수령 주소로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402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7월 2일 (수) ~ 8월 18일 (월)



1등 골드바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 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9월 8일(월)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z 1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충격·진동·운반 과정에서 자주 깨졌던 유리건판 대신 개발된 필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책 기사 참고)

Quiz 2 지난 4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여성 이용객을 구조한 방사선사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인터뷰 기사 참고)

Quiz 3 ‘환자를 위한 한 장의 정확한 영상’이라는 주제로 402호에 투고 기사 실어주신 방사선사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인사이트 기사 참고)

방사협보 제401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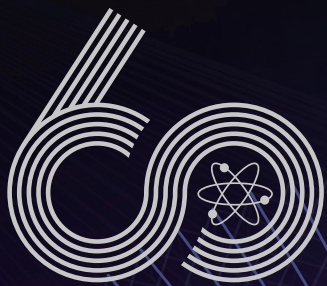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희입니다. 근무 중 협회에서 온 전화에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방사협보 퀴즈 이벤트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방사협보를 읽고 퀴즈도 풀고 당첨 후기를 볼 때마다 이런 건 누가 당첨되는 거지? 생각만 했었는데 그 행운이 저에게도 오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근무 7년 차에 잊지 못할 력키한 추억이 하나 생겨서 기쁘네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_윤*희 회원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빈입니다.

저는 현재 영상치의학기술학회에서 재무부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하게 되었고, 방사협보 퀴즈 이벤트를 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보 퀴즈가 나오면 가끔 퀴즈 이벤트에 응모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운이 좋게도 1등 당첨이 되었네요. 검사 중에 협회 전화가 오길래 재무관련일인가 하고 받았다가 당첨이 되었다는 소식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사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화이팅입니다! _박*빈 회원





KRTA
1965-2025

창립 60주년 기념
제3회 방사선사의 날

KRTA

함께한 60년, 세계로 나아갈 100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일시 2025. 7. 26(토) 11:00

장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강당



사단
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